



최분아작가, 예수병원 치유 '겸허한 향기' 초대전

예수병원 치유 갤러리 네 번째 초대전으로 최분아 작가의 '겸허한 향기' 주제 전시회가 4월 8일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예수병원 치유 갤러리는 예수병원을 찾는 환우들에게 의료서비스와 함께 쾌적한 의료 환경에 주목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주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치유 갤러리는 예수병원만의 차별화된 문화행사로서 전라북도 지역 내 작가의 미술 작품을 전시해 COVID-19로 침체한 우리 지역 미술계에도 상생할 수 있는 행사다.

여기에 김분아 작가의 꽃은 실제의 꽃이 아니며 홀로 화실에서 피곤 꽃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싶어 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초대전을 통해 최분아 작가는 꽃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작업의 과정은 캔버스에 물감을 뿌려 은은하게 번지게 함으로써 꽃의 향기까지 우려내게 하며, 화려한 꽃에 비해 화병은 다소 투박하다.

이상과 현실, 광장과 밀실의 공존을 함께 보여주며 총 15작품이 예수병원 치유갤러리에 전시됐다.

최분아 작가는 "겸허한 마음으로 그려내는 나의 꽃 이미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함과 따스한 향기가 전해지길 바란다. 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겸허한 마음의 향기를 표현했다"고 전했다.

예수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의 치료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유명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을 전시 공간적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예술적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일상에서 마주하는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병원을 찾는 환우들의 높아진 의식 수준에 발맞춰 나가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영태 기자



김승국 현대차 매니저 전북대병원 발전후원금 기부

현대차 전주공장 김승국 매니저가 지역의료와 전북대학병원 발전을 위해 발전후원금으로 100만 원을 2일 기부했다. 전달식은 유희철 병원장과 김진우 사무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에서 진행됐다.

김승국 매니저가 이번 전달한 후원금은 지난해 열린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받은 포상금이다.

김 매니저는 "회사의 품질개선과 원가 절감 등을 통해 받은 포상금기에 의미 있고 뜻깊게 사용하고 싶어 아내와 상의한 끝에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는 전북대병원에 기부기로 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료와 병원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매니저는 이번 기부 외에도 지속적으로 사랑과 나눔의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해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열린 봉사의 날 행사에서 전주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유희철 병원장은 "소중한 의미가 담긴 포상금을 큰 뜻으로 병원발전후원회에 기부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기부해주신 분의 선한 의지가 주변에 잘 전파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보내주시 기부금은 병원을 발전시키고 도민들에게 좋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유통공사 중소벤처진흥공단, 감사업무 협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삼임감사 이영애)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삼임감사 박정열)은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D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영애 삼임감사와 박정열 삼임감사를 비롯해 양 기관의 자체감사기구 직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2일 경남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에서 감사 전문성 제고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류 등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기관은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구 간 협력 채널 확대, 교차 감사 등의 감사 활동 시 전문 분야 인제 교류, 청렴 문화 개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확대 등에 합의했다.

이영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삼임감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의 감사 전문성과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뜻깊다. 향후 반부패, 청렴 등 감사업무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해 자체 감사기구의 상호발전은 물론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고품질 한우로 소비자·판매자 '윈윈'

고창부안축협 '부안한우명품관' 준공식

고창부안축협(조합장 김시중) 부안한우명품관 준공식이 2일 열렸다.

부안한우명품관은 부안군 부안을 변영로 85-1번지 일대에 연면적 529평의 2층 규모로써 1층은 마트(축산물 판매장) 2층에는 한우명품관(정육식당)을 갖추었다.

특히, 2층 한우명품관은 부안군이 출범한 참봉부안축산물브랜드를 기점으로, 고창부안축협 조합원들이 생산한 고품질의 한우를 취급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축산농가에게는 판매하는 등 상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부안군 권익현 군수, 부안군의회 김광수 의장, 농협중앙회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를 비롯한 전북관내 농축협조합장들과 부안군 기관단체장, 조합원과 군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준공식은 식전공연으로 부안의 효녀가수 미스트롯 김태연 가수의 공연과 함께 진행되었다.

고창부안축협 김시중 조합장은 기념사를 통해 "최근 우리의 먹거리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서 축산업이 국민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자연환경, 동물복지, 식생활개선 등 각종 문제들과도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하며 비단 조합원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사랑받고 존경 받는 강한조합을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부안=김석진기자



고경윤 정읍시의회 의장, 고향사랑기부제 솔선수범

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장은 지난 1일 전라북도 13개 시군에 각 10만원씩 총 130만원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탁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초기라는 점에서 제도를 시민과 출향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고향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부행렬에 동참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거주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백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지역의 특산물 등을 담례품으로 제공되며, 기부액은 고향 사랑 기금으로 조성해 주민 복리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지방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고경윤 의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소멸 대응의 원동력과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LX 직원 4명,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서 입사 수기 부문별 수상

기획재정부가 주최하는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2월1~2일 서울 aT센터)에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4명의 입사 수기 부문별 수상자로 이름을 빛냈다.

주인공은 LX서울남부지사 신동현(장애인채용·최우수상), LX영동지사 김하람(지역인재채용·우수상), LX공사 본사 장운성(블라이트채용·장려상), LX안산지사 유보선(장애인채용·장려상)이다.

장애인 채용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동현 씨는 10살 무렵 희귀 난치병으로 왼쪽 다리에 장애를 판정받고 공공기관 전형을 준비, LX공사의 장애인 맞춤형편을 통해 입사에 성공한 이야기를 썼다.

지역인재채용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김하람 씨는 전북대 도시공학부 재직 시절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 멘토링을 계기로 LX공사 입사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하기까지의 후기를 풀어냈다.

LX공사 김정렬 사장과 LX서울남부지사 신동현 LX영동지사 김하람 씨는 수기 공모 우수상 시상식(2월1일 서울 aT센터)에 참석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패를 받았다.



또 김정렬 사장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청년 구직자의 대화'에 배석하여 구직난 해소를 위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LX공사는 138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에서 공사 채용 계획·절차 등을 소개하고 구직자 상담을 위한 부스를 제공하여 맞춤형 설명을 이어갔다.

LX공사는 올해도 장애인·지역인재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국가지정 사적 지정' 부안 변산 죽막동 수성당제 4일 개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된 부안 변산면 죽막동 유적에서 오는 4일 수성당제가 열린다. 수성당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죽막동 수성당제에는 유관기관 관계자와 죽막마을 주민 및 무속인 등 50여명이 참여한다.

죽막동 수성당제는 해마다 어업과 항해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지내는 개인항해 제사(수성당제), 용왕제(해신제), 풍어제를 포함한 종합 제사의식이다.

지난 1974년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58호로 지정된 죽막동 수성당은 무속신앙 곳당으로 계양항미로 불리는 여신을 모시는 당이다.

계양항미는 8명의 딸을 거느리며 나막신을 신고 칠산바다를 걸어 다니면서 물살이 센 곳을 잡재우고 항해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죽막동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중요한 길



목으로 고대부터 배길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해안제사가 행해오고 있으며 고기를 잡기 위해 칠산어장을 찾는 어선들이 수성당 앞을 지날 때 갑판에서 조출한 음식을 차려 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삼국시대 흔적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디딤돌회, 디딤씨앗통장 700만원 후원

디딤돌회(회장 임광수)가 2일 익산시를 방문해 디딤씨앗 저축저조 이동을 위해 700만원을 기탁했다.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저축금액 중 월1만원까지 1:2로 매칭지원해 총 15만원으로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앞으로 학자금, 취업준비, 주거미련 등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디딤씨앗통장 저축저조아동 20명에게 7개월간 월 5만원씩 지원해, 총 2천1백만원의 후원효과로 아이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임광수 회장은 "작은 마음으로도 아이들의 사회진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모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덕진소방서장, 요양병원 안전관리 실태 점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2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행복나눔요양병원에 방문해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에게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기간 선제적 안전 점검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외상환자가 많아 관계자의 초기대응이 적절치 이뤄지지 않으면 다수 인명피해 발생의 위험이 커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관심과 소방시설의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날 점검에서는 요양병원 화재 발생 사례를 안내하며 병원장 행정부장 등 병원 대표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관심과 소방 및 방화시설 등의 철저한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임종은 기자



우체국 우편차량 활용한 공익홍보 서비스 실시

전북지방우정청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깨끗한 경쟁! 현명한 선택! 희망찬 조합!' 공익홍보 위한 우체국 우편차량을 활용한 홍보 협약을 2일 체결했다.

'우체국 우편차량 공익홍보 서비스' 협약은 '안전, 복지정보, 질병 예방' 선거 참여 등 공공기관 정책홍보와 함께 최근 생활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로 마련됐다.

이에 전북우정청은 먼저 지역주민들과의 밀접한 우편차량을 통해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상오만한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김꽃마을 전북우정청장은 "우체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우체국 공적역할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우체국 우편사업과 연계해 농어민과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 및 농어촌 금융 취약계층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등 공적공용을 강화해 사회적 책임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체국 우편차량 공익홍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등은 전북지방우정청(063-240-363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통찻집 '산수유' 인화동 착한가게 동참

익산시 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강병수, 이혜석)는 2일 착한가게 기부 동참 의사를 밝힌 '산수유(대표 박복자)'를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고 밝혔다.

익산시 마동에 위치한 '산수유'는 직접 만든 수제차를 판매하는 전통찻집으로 박복자 대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 부회장 및 익산시동로터리 부회장을 겸임하며 왕성한 사회활동도 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인화동에 커피방 100박스를 기탁하기도 했다.

박복자 대표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미안하며 도움을 주고 싶어 착한가게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수 공동위원장은 "나눔 행렬에 동참해 주신 산수유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1인가구 돌봄서비스인 이웃사랑돌봄, 다이로온 밀반출지원사업 긴급구호 지원 마중물 사업, 희망 보따리 꾸러미 지원사업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인화동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